



사자 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

다니엘 6장

어려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나이가 들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성실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깨끗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가 메대의 왕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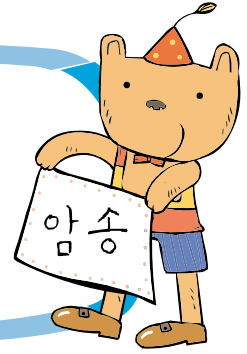
“위대한 왕이시여! 앞으로 삼십 일 동안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드십시오.”

왕은 그것을 허락하여 법을 만들고 온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지만 항상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창문을 열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3)



이 사실은 왕에게 곧 알려졌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 굴에 넣으라고 조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왕은 급히 사자 굴로 갔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살아 있느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내가 아무런 죄도 없으며 왕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 굴에 넣으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습니다.
사자들은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잡아먹었습니다.



오늘의 공부

다니엘에게는 목숨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했어요

1. 다니엘에게는 하루 세 번씩 날마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2. 어느 날 다니엘은 새로 만든 왕의 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써 보세요.



앞으로 누구든지

3. 여러분이 다니엘이었다면 그 법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4. 다니엘은 왕의 법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

- ①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 하므로 창문을 꼭 닫고 몰래 기도하였다.
- ②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죄는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
- ③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창문을 열어 놓고 기도하였다.
- ④ 창문을 열어 놓고 기도하긴 했지만 서서 마음 속으로만 기도하였다.

다니엘은 어떤 큰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공부

5.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이 무섭거나 부끄러워서 못하는 것이 있나요?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생각해 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써 보세요.



? 무섭거나 부끄러워서 못하는 것:

★ 하나님께 하는 기도

A large, light green, rounded rectangular area with horizontal lines, intended for writing a prayer.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20)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사람을 사자 굴에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요.

그림 ①



기도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지?
나만 기도하면 부끄러운데.
에이!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림 ②



너 또 교회가면
아버지한테 혼난다.
절대로 가지 마라!

네..네,
알았어요.

🌸 위의 모습은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 그림 ①의 어린이에게 원하시는 것

☹️ 그림 ②의 어린이에게 원하시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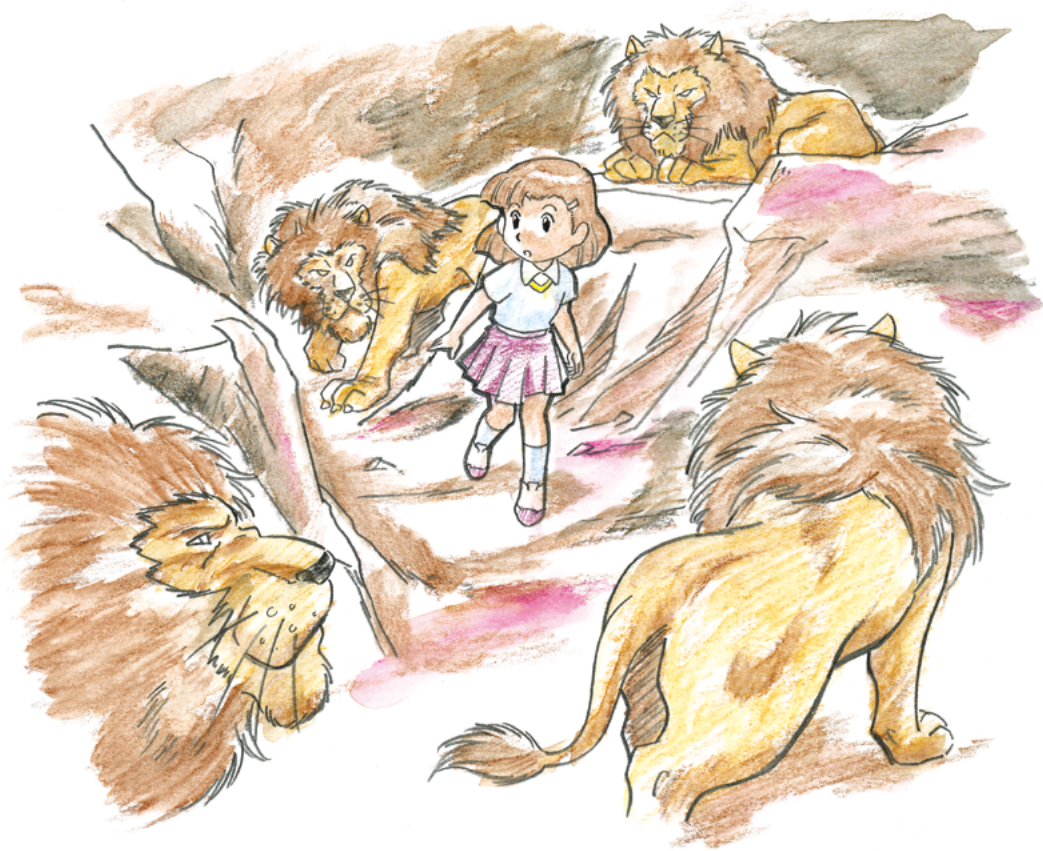
🌸 우리는 때로는 부끄럽고 두렵지만,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 주신 일을 생각하면서 대답해 보세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부끄러움을 겪었고 너를 위하여 목숨을 주었다.
너는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부끄러워하느냐!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사자 굴에 던져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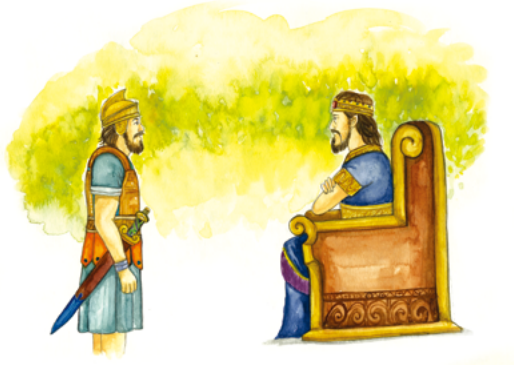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26)



예화



* 용기있는 믿음

프러시아의 프레드릭 왕은 예수님과 교회를 비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본진랜드 장군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신하들과 같이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왕은 예수님을 비웃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때에 엄숙한 표정을 한 본진랜드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왕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왕폐하, 대왕께서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터에서 대왕을 위하여 38번을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저는 지금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머지않아 지금 대왕이 비웃으시는 나의 예수님을 만나 보러 가게 됩니다. 늙었지만, 영원을 바라보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 더욱 위대한 분인 것을 압니다. 폐하, 저는 이제 물러가려 합니다.”

이 엄청난 말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즉시 장군을 처형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대왕은 떨리는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진랜드 장군. 내가 잘못했소.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용기있게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